



추석이 코 앞인데… 체불임금 ‘눈덩이’

8월말 현재 도내 2060명 임금 76억 체불로 고통
분쟁중인 체불임금도 34억… 전년 比 갑절 증가
금융·부동산·서비스업 최고… 도·소매업 등 순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분쟁중인 제주 도내 체불임금액은 8월말 기준 34억47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갑절 가까이 늘었다. 특히 이 중 체불정산은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등의 사유로 사법처리 절차를 밟은 체불액은 31억원에 달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주지방법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근로복지

공단, 제주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10일 개최한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8월말 기준 체불임금 현황을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8월 말까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060명으로 체불 금액은 76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해결되지 못하고 분쟁중인 체불임금은 사법처리 31억, 처리중

3억4300만원으로 총 34억47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보다 15억8100만원 (85%) 증가한 규모다.

해결되지 못한 체불임금 중 광주지방법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서 처리중인 체불임금액은 전년 동기보다 9600만원 (38.8%) 증가했고, 사법처리 절차를 밟았거나 밟고 있는 체불임금액은 14억9500만원 (92.9%) 증가했다.

처리중인 체불임금액이 가장 많은 업종은 ‘금융·부동산 및 서비스업’으로 체불액이 1억3000만원에 달했고, 이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7800만), 건설업 (7300만) 순으로 체불금이 높았다.

체불임금 발생사유는 ‘일시적 경영 악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제주도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불청산지원 사업자 응자 제도 및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 제도를 집중 홍보한다.

또한 추석 명절 이전 임금체불 발생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한 관공공사 임금체불 예방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체불임금 해소대책을 실시한다. 특히 추석을 2주 앞둔 10·23일 동안 임금체불 우려 사업장을 집중 지도 점검해 체불 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활동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채해원기자 seawon@ihalla.com

남매가 서귀포해양경찰에 나란히 임용

대구출신 김유리·대영 순경
해양경찰관으로 동시 임용

남매인 김유리 (34)·대영 (31) 순경이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경찰관으로 동시 임용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유리·대영 순경은 경북 대구 출신으로 올해 7월 해양경찰교육원을 졸업하고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동시 임용돼 3006함과 3003함으로 각각 발령을 받았다.

이들은 2018년 8월 서귀포해양경찰서 서귀포파출소에 현장실습을 함께 오게 되면서 남매 경찰관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누나인 김유리 순경은 어린 시절부터 바다를 좋아해 막연하게 해양경찰의 꿈을 꾸어 오다 해병대를 나와 먼저 꿈을 키워왔던 동생의 권유로 해양경찰 시험을 준비하게 됐다.

해병대를 전역한 동생 김대영 순경은 매사에 긍정적이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의 안전은 내가 꼭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어릴 적부터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해양경찰에 동시 임용된 김유리·대영 순경.

노력했으며, 특히 수험기간 동안 체력이 약한 누나를 위해 함께 운동하면서 누나가 체력시험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들 남매경찰관은 제주도를 지원한 동기로서 “누나 김유리 순경은 제주에서의 삶에 대한 동경이 있었고, 동생 김대영 순경은 군복무 시절 제주도 대민지원 당시 좋은 인상을 받아 주저 없이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흥준기자



제2공항 성산을 반대대책위 등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토위원회 없는 일방적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강희만기자

“일방적 용역보단 검토위 구성이 우선”

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 등 어제 기자회견 반발
“속의과정 필요함에도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추진”

국토교통부가 11일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제2공항 반대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을 반대 대책위원회와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은 1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는 검토위원회 없는 일방적인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 진행과 중간보고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15년 발표한 제2공항 계획의 근거가 된 사전타당성 보고서는 온갖 의혹과 통계 조작 등의 오류, 오류에 대한 절취 문제, 공군기지 설치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결국 국토부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전타당성 검토를 다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재검증 과정에서 국토부는 용역 업체 공모와 선정을 스스로 진행하는 ‘셀프 검증’을 강행했다”며 “그럼에도 성산대책위는 대승적 양보를 통해 국토부의 공모 선정과 진행에 대해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다만 공정한 용역을 위해 양측 동수 추천의 검토위원회를 구성, 타당성 재조사 용역진에 점성사항을 제시하고 모니터링과 공청회 및 설명회 등을 운영하는 등의 기능을 부여하

기로 했다”며 “하지만 국토부는 검토위 구성에 대해 성산대책위의 제안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용역을 진행했고, 이제는 중간보고회까지 개최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2공항 계획은 임계지에 달한 오버투어리즘의 폐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부터 현재보다 두배 이상의 관광객을 받는 것이 과연 제주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판단이냐는 문제까지 깊은 속의과정을 거쳐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국토부는 검토위 구성 전까지 현재의 일방적인 용역 보고회 진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아울러 연구용역의 일방적인 진행을 중단하고 검토위 구성을 위해 지금 당장 대책위와의 조건 없는 실무협약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송은범기자

승합차 숨어 빠져나가려던
30대 중국인 검거·이첩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 (32)씨를 검거해 제주해경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30분쯤 한국인 B씨가 몰던 승합차 뒷자석 박스 속에 숨어 전남 녹동행 여객선에 오르기 위해 제주항 3부두로 진입하던 중 보안검색에 적발됐다.
송은범기자

공사장 근로자 사망사고
업체 관계자들에 징역형

공동주택 공사장에서 펌프카가 전도되면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법원이 공사 시행업체 관계자 등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운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김모 (45)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박모씨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관련 건설업체 2곳에 대해서는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제주시 노형동 소재 다세대주택 건물 신축공사를 하던 중 지난해 1월 6일 콘크리트 타설용 펌프카 작업도중 전도되면서 근로자 박모 (59)씨를 덮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업체는 사고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도 착용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과실을 인정했다.
이현숙기자 hslee@ihalla.com

제주도자치경찰단 5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특산물, 선물용품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형 관광식당 등을 중심으로 지난 4일부터 21일까지 특별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현재까지 수입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총 5건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4건을 형사입건하고 1건은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단속결과 독일산 돼지고기 180kg과 칠레산 돼지고기 246kg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제주시 대형 향토음

식전문 A식당과 서귀포시 B뷔페식당이 적발됐고, 미국산 돼지고기 전지 72kg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제주시 C식당, 브라질산 닭고기 10kg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D돈독식당 등이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남은 단속기간 동안 수입·국내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합동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또 육류, 조식, 굴비 세트 등 명절 제수용품이나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중점단속한다.
채해원기자

취객 ‘부족빠기’ 50대 검거

제주동부경찰서는 취객에게 접근해 도와주는 척하며 금품을 훔치는 이른바 ‘부족빠기’를 저지른 혐의(절도)로 A (53)씨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27분쯤 제주시내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씨를 부족빠하는 척하

며 B씨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10만원이 든 지갑을 빼내 도주하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17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가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송은범기자

정말! 억울하지요!! 돈 잃고, 사람 잃고..

빌려준 사람도 두 다리 쪽 뺏고 편히 주무시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전화주세요.

집행권원(판결문)있는 민사채권, 공사대금, 물품대금, 기타 등 등..

아, 잠깐!! 저희 회사는 착수금(선불경비)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신뢰를 받겠습니다.



세일신용정보(주)

(064)757-7770, FAX. 757-7769

제23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대회

평등을 일상으로! 행복한 제주!

일시 2018년 9월 13일 (목) 오후 1시 30분
장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대강당(4층)

I 축하공연

- 평양모란봉예술단
- 낭만소년단

"느영나영! 어울려더울림!"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사)제주특별자치도 여성단체협의회

한가위대전

그랜드보청기

제주도내 배터리 최저가 판매
25,000원 > 15,000원에 판매

다양한 행사에 참ชน들 혼저 전화 주심서!

- 1+1(프리미엄 모델 행사)
- 방문고객 기념품 증정
- 무료 보청기 최적화진단

NAVER 그랜드보청기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보청기 A/S

064-725-9275

시외버스터미널 동쪽 700m 행복뽕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